

보도자료

게시일 : 2004-06-18 제 목 : 제11차 한.중 경제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문의전화 : 2100-7672(동북아통상과)
2004.6.17.(목)

발표일시 :

제 목 : 제11차 한.중 경제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1. 제11차 한.중 경제.기술.무역공동위원회(이하 경제공동위원회)가 6.17(목)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최영진 외교통상부차관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특허청 등의 관계관이 참석하였으며, 중국측에서는 안민(安民, An Min) 상무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상무부외에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品質監督檢驗檢疫總局) 및 동북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과 산둥성 상무청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2.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92년 수교이후 질적 및 양적인 측면에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양국 관계의 현황과 미래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2003.7월 우리 대통령의 방중시 합의한 10대 경제협력 사업 및 한·중 경제통상협력 비전 공동연구를 차질 없이 실행키로 하였다.

3. 동 회의에서 우리측은 상기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 중국의 대한 투자 확대, 중국 주재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지적재산권 침해문제, 한.중 투자보장협정개정, 한·중 항공자유화 추진 등에 대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중국측은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으며, 중국정부도 중국 우수기업의 대 한국 투자를 환영한다고 하는 한편, 우리 진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해결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 한.중 투자보장협정개정, 한.중 항공자유화 추진에 대해서 공감을 표명

4. 한편, 중국은 금년 들어서도 계속 확대 추세에 있는 양국간 교역불균형의 개선을 위해 조정관세품목의 감축 및 관세를 인하 등을 포함, 우리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중국의 주요한 경제협력 대상국인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 줄 것

을 요청하였다. 또한 양벳 등 중국산 과일의 대한 수출 등 검사.검역상의 애로와 농산물 수입입찰 절차의 개선을 요청하였다.

○ 중국측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요청에 대해 우리측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무역불균형의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가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5.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는 92년 양국정부간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공동위원회 설립협정'에 의거하여 매년 양국 수도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끝.

외교통상부 대변인

담당부서 WEB-MASTER 2100-7155 web@mofat.go.kr

 프린트

 다운로드